

安心安身の 理解

鄭大珍*

目次

- | | |
|--------------------------------|-----------------------|
| I. 머리말 | 2. 안신(安身)의 개념 |
| II. 종지(宗旨)와 신조(信條)의 관계 | 1) 심(心)과 신(身)의 관계 |
| III. 신조(信條)로서의
안심(安心)안신(安身) | 2) 안심(安心)에서 안신(安身)으로 |
| 1. 안심(安心)의 개념 | IV. 안심(安心)안신(安身)의 이상 |
| 1) 심(心)과 안심(安心) | 1. 대순진리와 안심(安心)안신(安身) |
| 2) 안심(安心)의 방법 | 2. 안심(安心)안신(安身)을 위하여 |
| | V. 맺음말 |

I. 머리말

구천상제께서는 인세(人世)에 강세하시어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해 내일의 새로운 세계를 예비하셨으며, 도주(道主)께서는 그 공사를 계승하여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종단으로서의 법제(法制)를 갖추었다. 그 유지를 받들어 창설된 대순진리회는 양위(兩位)상제님의 진리를 체념봉행(體念奉行)하는 것으로 그 대체(大體)를 삼고 있다. 이에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전편(前篇)을 통해 기술한 바 있다. 종지는 그 종교가 주창하는 핵심사상이 담겨 있으며 따라서 대순종지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주요개념이 될 수 있다.

종지에 나타난 내일의 세계는 한마디로 상서가 무르녹고 무한히 풍요로우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며 윤리도덕의 기강이 확고하고 원하는 바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좋은 곳에서 누구나 서로 어울려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갖추어야만 하는 자세와 조건이 필요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본 종단에서 신조(信條)로 삼고 있는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에서 그 내용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신조(信條)란 일반적으로 그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앙인이 숙지하여야 하는 공인된 교의(教義)를 말한다. 여기에는 특히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나가야만 하는 실천적 자세를 담고 있다. 이에 대순(大巡) 신조(信條)는 구천상제에 대한 믿음으로서 천지공사(天地公事)의 대업(大業)을 숭봉(崇奉)하고자 하는 신도(信徒)가 마땅히 파악하고 갖추어 나가야만 하는 자세를 뜻하고 있다. 따라서 대순신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수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관건이 되고, 나아가 본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수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와 관련하여 주요한 주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신조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대순진리회 요람에 따르면 안심에 대해서는 『사람의 행동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무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虛慾)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한다.』라고 하였고, 안신에 대해서는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몸과 마음이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안정을 이룰 때 모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말이니 그 개념을 알고 방법을 안다는 것은 대순진리의 수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본문을 전개하기로 한다. 먼저 대순종지와 신조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다음으로 신조의 주요항목인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에 대해서 그 개념을 파악하며, 나아가 대순진리의 수행에 있어서 안심(安心)안신(安身)은 어떠한 의

미를 가져다주는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로써 신조의 일단을 살펴 보고 그 향후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 종지(宗旨)와 신조(信條)의 관계

하나의 종교가 성립하기 위해 갖추어야만 하는 요소로서는 제일먼저 신앙의 대상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종지(宗旨)가 서고 다음으로 신조(信條)가 나오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종교의 목적(目的)이 있게 된다. 이 때 종지는 그 종교의 사상을 대변하는 핵심개념으로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16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도주께서 구천상제로부터 종통을 계승하면서 후천을 전망하여 내놓은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면 먼저 음양합덕(陰陽合德)은 후천의 천지를 이루는 조판(組版)과도 같으며 무한히 풍요로운 환경을 이루는 기본 틀이 된다.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의 권위와 질서에 입각한 확고한 윤리도덕적 기강을 말한 것이며,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오로지 상대를 잘되게끔만 하는 하나의 사회생활을 말하고,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이 모든 여건이 참되게 갖추어진 후천의 전체세계를 말한다. 이러한 종지를 바탕으로 하여 구천상제의 대순진리에 대한 설명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그 가르침에 입각한 실천수행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대순진리를 실천수행한다 함은 곧 대순종지가 설명하고 있는 참되고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한 방법을 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후천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를 생각할 때 실천수행의 문제가 대두되며 여기서 주어지는 교의(教義)가 바로 신조(信條)인 것이다. 신조는 대순진리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수도인의 자세를 말할 수 있다.

신조(信條)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신앙에 대한 조건이 있음을 가리킨다. 신앙을 할려면 이 조건대로 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크게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 나뉜다.

이는 마치 불교에 삼법인(三法印) 사요체(四要諦)가 있는 것과 그 원리가 같은 것으로 이 조건대로 믿어나가야 성불(成佛)할 수 있듯이, 대순진리도 사강령과 삼요체로서 믿어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강령과 삼요체에 벗어난 행위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강령(四綱領)이라고 할 때 강령이란 일의 으뜸이 되는 줄거리 또는 핵심 요강을 말한다. 강(綱)은 수많은 그물코를 하나로 묶어서 이끌 수 있는 버리를 말하며, 령(領)은 영공(領空) 영토(領土) 영해(領海)등 두루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강령이란 구천상제의 대순진리가 전 세계 우주 만방에 널리 퍼져서 이를 봉행(奉行)하는 것으로 버리를 삼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가 있으며 이는 편의상 안심과 안신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다룰 수 있고 경천과 수도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다룰 수 있다. 안심과 안신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그 주(主)와 종(從)을 파악하고 나아가 일체(一體)의 경지에서 이를 수 있는 종교적 이상을 다루고 있다. 경천과 수도는 곧 천(天)으로 대표되는 신앙대상에 대한 설명과 신앙주체인 인간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그 합일적 과정으로서의 수도를 통해 달성되는 이상적 경지를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이 네가지는 상호 유기적 관련하에 하나의 통일적 강령으로서 종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삼요체(三要諦)라고 하면 세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점 또는 핵심진리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진리는 곧 수도인이 지녀야 할 핵심자세와도 같으며 이는 신조로서 다루어지는 것인만큼 강령과 함께 대순종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 내용으로서는 성(誠) 경(敬) 신(信)이 있으며, 이 때 성(誠)은 마음의 문제로서 경(敬)은 몸의 문제로서 신(信)은 일(事)의 문제로서 각각 다룰 수 있다. 이 세가지를 통해서 대순진리에 대한 핵심요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수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세가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강령과 삼요체에 대한 대강(大綱)은 대순진리의 신조를 구성하는 주요항목이 된다. 신조는 곧 대순종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으로 수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수적인 자세이자 요체이다. 종지를 내세운 것은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상에 있어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사상적 핵심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신조를 제시하는 것은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신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주요항목이 되는 첫 번째 주제로서 안심과 안신에 대한 대체적인 개념과약을 해보기로 한다.

Ⅲ. 신조(信條)로서의 안심(安心) · 안신(安身)

1. 안심(安心)의 개념

1) 심(心)과 안심(安心)

안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心), 즉 마음에 대한 이해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동을 주재하고 이끄는 무형(無形)의 본체로서의 마음은 동양 고래(古來)로부터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순진리에서도 그 종교적 경지를 수양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강조가 무엇보다도 선행되고 있다. 따라서 안심의 의미과약을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의미와 그 본질부터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은 곧 천지의 근원이 되고 그 운행을 주관하는 본체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전경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늘이 우로(雨露)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방에 원한이 있게 되고, 땅이 수토(水土)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물에 원한이 있게 되며, 사람이 덕화(德化)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사에 원한이 있게 되니, 하늘이 쓰고 땅이 쓰고 사람이 쓰는 것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天用雨露之薄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必有萬事之怨,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 행록 3장 44절)

윗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은 천지와 사람에 두루 관통하는 것으로 만방 만물 만사에 원한이 맺히지 않도록 그 쓰임을 주관하는 본체인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天地)에서 우로(雨露)와 수토(水土)를 내리고 사람이 덕화(德

化)를 베푸는 등의 행위는 모두 마음의 쓰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이를 잘 다스려 시행함으로써 원만하고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마음은 또한 사람의 내면에 들어 있으면서 선악(善惡)의 행동을 주관하는 대체(大體)이다. 다음의 글에서 살펴보면

마음이란 것은 귀신의 추기이며 문호이며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가는 신에는 혹 선한 것도 있고 혹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쓰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도 크다.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 상동)

라고 하여 마음은 곧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추기이며 문호이며 도로이다. 이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 선한 신(神)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 곧 악한 신(神)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이 안다면 선한 것을 볼 때는 이를 스승으로 삼아 본 받을 것이며, 악한 것을 볼 때는 자신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를 바르게 고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마음은 모든 신(神)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이 되기도 하고 천지를 운용하는 본체가 되기도 함으로써 결국 천지보다도 큰 것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마음에 대한 설명에 입각해볼 때 사람은 그 자신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 즉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신이 들어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신이 들어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이는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23절)에서와 같이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먹음에 따라 신(神)이 그 사람에게 응(應)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계속 악독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 남을 해치고야 마는데, 이것을 스스로 채찍질하고 고치게 되면 곧 좋은 신이 들어와 머리가 맑아지고 안정이 된다.

한 사람이 먹은 마음과 관련하여 전경에는 또 다음과 같은 문구(文句)가

보인다.

나쁘게 보아서 장차 제거하려고 하면 잡초 아닌 것이 없고, 좋게 여겨서 취해보면 모두가 꽃이다. (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 : 교법 1장 11절)

윗 글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모든 사물이 극단적으로 달리 보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어떤 악독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원망하지 않으며, 전부 꽃과 같이 아름답게 쳐다볼 수 있을 때 해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수용하고 포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좋게 먹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해 나가게 되면 누구를 대하더라도 어여뻐 여기고 사랑하게 되며 이로써 진정한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이다.

안심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나쁜 신을 차단하고 이를 고쳐써서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고 위협을 가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바른 도(道)를 지켜나가는 것이 곧 안심인 것이다.

대순진리를 실천 봉행(奉行)하는 수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 신념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강력한 신심이 확보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상제께서는 일찌기 화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종도들로부터 다짐을 받은 적이 있다.

상제께서 모든 종도를 꿰어앉히고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는지라. 종도들이 믿는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시는지라. 종도들이 그래도 따르겠나이라고 맹세하니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고 다구치시니 역시 종도들이 찾겠다고 말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리 못하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오.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5장 22절)

즉 상제께서 9년간의 천지공사를 마치고 화천하시면서 종도들로부터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였으며 이로부터 종도들이 아무리 상제를 찾고자 하여도

찾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는 상제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심이 되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이로써 상제께서는 그러한 신심(信心)이 있는 사람을 비로소 찾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안심은 곧 구천상제의 진리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상제의 대업을 이루는 날까지 흔들림없는 마음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안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2) 안심(安心)의 방법

안심은 단순히 주변에 어려움이 없어 풍요롭고 따라서 마음이 편안하여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구천상제의 공사를 받들어 수도해 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를 가리킨다. 즉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해도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正道(正道)를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여야만 한다. 여기에安心的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구천상제께서 내 놓으신 대순진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유일무이한 진리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야 말로 어떤 사상이나 종교와 비교해 보더라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전무후무의 진리임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에 확고한 신념이 생겨서 곧 안심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순진리는 구천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선포하신 전무후무의 진리이다. 진멸지경에 빠진 선천의 세계를 구제하고자 그 절대권능을 발휘하여 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는 그 어떤 성인(聖人)도 감히 언급할 수 없었던 우주의 총체적인 개혁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상제께서는 만고에 쌓였던 원한의 고리를 풀고 상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였으며, 신명과 인간이 하나로 조화된 세계에서 인간이 원하는 어떠한 소망도 다 이루고 살 수 있게끔 선경(仙境)의 낙원을 예비하셨다. 전경에는 다음과 같은 상제의 말씀이 나온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공사 3장 5절)

윗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천의 반목 쟁투는 모두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에서 비롯함을 말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상제의 천지공사는 해원을 위주로 하여 신명을 조화함과 동시에 천지의 도수를 조정함으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선경을 세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천지공사는 오직 상제에 의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유일무이한 것이며,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상세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역대 어느 종교가도 말하지 못했던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핏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공사 1장 11절) 하시고 「이 세상에 전하여 오는 모든 허례는 묵은 하늘이 그릇되게 꾸민 것이니 앞으로는 진법이 나오리라.」 (교법 3장 37절)고 하여 천지공사의 대순진리야말로 기성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새롭게 창조된 진리로서 후천의 대운(大運)을 여는 유일한 길임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따라서 종단의 초기형태인 무극도를 창도(創道)하신 도주(道主)께서는 이러한 구천상제의 공사를 받들어 상제를 구천응원 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였으며 그 진리의 내용을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종지에 다 담았던 것이다.

도주께서 통사동(通士洞) 재실에서 어느날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을 앞에 모으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 상생 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어 도(道)를 밝혀주셨도다.(교운 2장 18절)

즉 구천상제께서 강세하시어 선포하신 대순진리는 금불문 고불문의 진리라고 할 수 있으며 무극대운의 해원상생 대도(大道)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

여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곳곳하게 정진해 나갈 때 이를 두고 안심(安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안심의 방법으로 또 하나 중요하게 거론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번뇌와 욕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의심이 생겨서 이것이 번뇌가 되고, 사회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면 이것도 번뇌를 불러 일으킨다.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은 한마디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는데 있다. 이러한 욕심은 사람이라면 없을 수 없으나 다만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한도 밖의 욕심을 무한정 부려나가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 가운데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 세가지를 든다면 크게 색(色)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부(富)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 세가지의 욕심은 인간의 원초적인 삶과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최소한 이것만 극복한다면 다른 것은 능히 다스릴 수 있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에 집착하다 보면 끝없이 욕심이 커져 나가고 이에 따라 자신의 몸을 망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것도 욕심을 부려 무한정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욕심을 저버림으로써 모든 번뇌가 없어지고 따라서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 질 수 있다. 이것이 곧 안심(安心)이니 이 때 안심은 다른 말로 청심(淸心)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청심(淸心)이 되면 마음이 정화(淨化)가 되고 따라서 정심(正心)이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천상제의 진리를 받들어 각자 바라는 바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먼저 강조되는 것이 마음이며, 이 마음이 안심됨으로써 모든 행동의 결과가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2. 안신(安身)의 개념

1) 심(心)과 신(身)의 관계

안심에서 일컫는 심(心) 즉 마음이 깃들여 있는 곳은 몸(身)이다. 안신(安身)은 곧 몸이 안정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안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몸은 마음을 담고 있으면서 이 마음이 지배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기본적이다. 몸은 마음의 집이고, 마음은 또한 신명이 머무는 집이 된다. 여기서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몸이라고 할 때 마음과 몸은 둘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 몸으로 하는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 명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도 몸과 마음이 같이 받는다. 전경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다.

한 고조는 소하(蕭河)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나니 너희들은 아무 것도 베풀 것이 없는지라. 다만 언덕(言德)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가할지니라 하셨도다.(교법 2장 50절)

말과 행실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고 이 마음은 신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며 추기이고 도로이다. 이에 따라 남에 대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드나드는 신명이 상대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게되며 다시 그 신명이 말을 잘 한 사람에게 돌아와 그 사람 자신도 잘되게 만든다. 반대로 남을 헐뜯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신명이 상대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 그 신명이 돌아와서는 결국 그 자신도 화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로서 볼 때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마음이 시켜서 한 것인데 만약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몸이 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며 먼저 마음을 바로 세우고 안정시킴으로써 몸도 더불어 안정될 수 있게 된다.

상제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잘못이 결국 몸의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 (교법 3장 24절)

즉 인간은 항상 욕심을 채우고자하며 그렇지 못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먼저 난법이 세워짐으로써 저마다의 욕망을 채우게끔 한 후에 진법이 나와 각자의 잘못을 심판하게 된다. 이때 사곡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죄가 되어 벌을 받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 자는 복이 되어서 좋은 운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마음에 항상 먹줄을 겨누고 있는 신명을 생각할 때 올바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바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건강이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듯이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도 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고쳐서 바르게 먹으면 몸의 체질이나 성격도 고쳐지게 된다. 이것은 모두 신명이 마음을 통해 드러내기 때문이며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멀리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상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야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뿔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곡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 있나니라. (교법 3장 4절)

라고 하여 사람의 마음으로 드러드는 신명으로 하여금 그 체질과 성격을 고

쳐 쓰신다고 하였다. 이는 마음의 상태가 곧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몸과 마음이 합일된 이상적인 건강상태를 추구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그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않음으로써 크고 좋은 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안심이 곧 안신으로 이어져 진리의 올바른 실천수행이 가능해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안심(安心)에서 안신(安身)으로

몸이 마음의 명령을 받아 행동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받는다면 몸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곧 마음의 안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안심(安心)은 안신(安身)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며 마음이 안정되면 몸과 동시에 안신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안심과 안신은 신조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하겠다.

안신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심을 거론하는 것은 앞에서 진리에 대해 확신하는 것과 함께 모든 욕심을 절제하는데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안신(安身)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안심에서 비롯되며 안신의 방법이 곧 안신의 방법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안신이 되지 않아서 몸에 병이 생기면 이는 곧 마음이 안된 증거이므로 마음이 안정되면 몸에도 병이 낳을 수 있다. 전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일화는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무더운 여름 어느날 상제께서 김 병욱의 집에 들르시니 종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도다. 병욱이 아내에게 점심 준비를 일렀으되 아내는 무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여 피로와 하면서 혼자 불평을 하든 차에 갑자기 와사증에 쓰러지는지라. 이 사정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 여인의 불평이 조왕의 노여움을 산 탓이니라」 하시고 글을 써서 병욱에게 주시면서 아내로 하여금 부엌에서 불사르게 하셨도다. 아내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에 나가서 그대로 행하니 바로 와사증이 사라졌도다.(행록 4장 36절)

위의 일화를 볼 때 김병욱의 아내는 점심준비를 하면서 불평을 마음속에

품다가 곧 와사증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는 마음에 드나드는 신명이 그 불평에 따라 해를 입힌 것이니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몸이 병을 얻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의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신명이 달래어지고 따라서 몸도 완쾌될 수 있다. 여기서 안심이란 오직 상제를 지성으로 모시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그 마음에 어떠한 불만이나 불평도 없이 공사를 받들어 나가는 자세를 말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일화도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시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 일에 준비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피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 (행록 1장 29절)

상제의 천지공사를 받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불평을 품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일이 되지 않는다. 떡 한시루를 찌는 데도 그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게되면 결국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어서 몸이 안정되지 못하므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제께서는 그 마음에 불평을 품은 것을 뉘우치게 하고 안심이 되게 한 후에 일을 보게 하니 떡이 잘 익게 되었음을 가르쳐주시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안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그 여부는 안심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심이 되면 안신이 되고 안신이 되면 곧 바라는 바의 일이 된다.

한편 직접 일을 하는 것은 몸이 하지만 항상 그에 상응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안신이 하나라면 안심도 하나이어야만 한다. 하나의 몸에 하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의 몸에 두가지 마음이 있으면 하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의 글에서 보면

박 공우가 한때 일진회의 한 간부였으나 상제를 따른 후의 어느날 가만히 일진회 사무소에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상제께서 문득 공우에게 이르시기를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 하시기에 공우는 놀라며 일진회와의 관계를 아주 끊고 숨기는 일을 하지 않으니라. (권지 1장 19절)

고 하여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몸이 찢어진다고 하여 이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교법 2장 5절)고 하셨으니 일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한 마음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한 마음은 일심(一心)이라고도 하며 상제의 교법에 있어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상제께서는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 낙안(林樂安)은 죽고 최 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교법 3장 20절) 고 하여 일심의 힘이 목숨까지도 건질 만큼 큰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심은 안심과도 상통하며 안심이 곧 안신을 가져와 목적하는 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안심을 강조함은 그 마음에 사욕이 없는 청정무구한 청심(淸心)을 말하며 이 청심은 곧 정심(正心)이면서 일심(一心)과도 통하고 있

다. 그리하여 안심에서 안신으로 나아가 일의 성공을 가져오게 되니 대순진리를 실천수행하는 수도인들에게 특히 강조되는 신조라고 아니할 수 없다.

IV. 안심안신(安心安身)의 이상(理想)

1. 대순진리(大巡眞理)와 안심(安心)안신(安身)

구천상제께서 강세하여 선포하신 대순진리는 천지공사라고 하는 대역사(大役事)를 통해 집약되고 있다. 천지공사는 근본적으로 삼계(三界)의 해원을 위주로 하며 나아가 상생(相生)의 대화합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대순진리는 해원상생을 슬로건으로 하여 만방에 펼쳐지는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해원상생의 이념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상제의 천지공사를 이룩하는데도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현대에 이르러 수많은 종교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해원상생의 과정이며 나아가 종교 전체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에 해당된다. 이럴 때 대순진리를 실천하는 수도인은 안심안신의 신조에 입각하여 해원상생의 이념에 맞도록 실천해야만 한다.

해원상생을 실천한다 함은 나 자신이 욕심을 부리기 쉬운 부분에서 먼저 남에게 양보하고 나아가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고 안 좋은 것은 남에게 떠 넘기는 것은 해원상생 사상에 위배되는 것이다. 낫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상대에게 오직 덕(德)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것이 해원상생이다. 그래서 상대가 잘 되고 나면 그 여음(餘蔭)이 밀려서 결국 내가 잘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상제의 천지공사에서 확정된 대순진리이며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진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를 자각하지 못한 선천의 세계는 모든 사람이 자만 자족하고 오직 자신만의 영욕을 채우기 위해 힘써 왔으니 이에 따라 책(慙)이 발생하고 재앙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상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순진리를 밝혀주고 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샧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곡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 있나니라. (교법 3장 4절)

즉 물샧틈 없는 도수대로 천지공사가 짜여져 있으므로 후천의 해원상생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비록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하더라도 오직 상제의 공사에 대한 확신으로 그 마음과 몸이 안심안신을 하여야 하며, 죄를 짓지 않고 척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유하고 지식이 많으며 강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므로 척에 걸리고 따라서 후천의 큰 운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말하자면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돌우기에 마음을 쏟아 탄 생각을 머금지 않아 상제의 해원상생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우며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상제의 도성덕립(道成德立)을 하루 속히 기다리고 운수가 조아들 때 마다 상제에 대한 일념으로 지새게 되니 이들이 바로 상제의 사람”(교법 2장 8절 참조)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상제께서 일찍이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교법 3장 1절)고 하여 그 마음이 지극한 자를 대상으로 기운을 붙여서 쓰신다고 한데서 연유된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천하고 병들어서 부귀한 자들로부터 소외되었으나 도성덕립을 향한 그 지극한 마음을 보고 신명으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드나들게 하여 고쳐 씌으로써 상제의 공사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로 진단하신 이 세계는 한마디로 큰 병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하늘도 묵은 하늘로서 병이 들어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으며 땅도 후박(厚薄)의 차이가 있어 대접받고 버림받는 정도가 심하였

으며 사람도 이 속에서 병이 들어 원울과 번뇌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병의 원인을 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상제께서는 무도(無道)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대병(大病)과 소병(小病)이 차례로 나오게 된다고 하였다.

...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

祈禱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至氣今至願爲大降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병에는 대세가 있고 소세가 있다. 대병에는 약이 없으며 소병에는 간혹 약이 있다. 그러나 대병의 약은 안심안신이고 소병의 약은 사물탕 팔십첩이다. 기도문은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자기금지원위대강이다. 대병은 무도에서 나오고 소병도 무도한데서 나온다. 그 도를 얻게 되면 대병은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소병도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다. : 행록 5장 38절)

윗 글에서 볼 때 대병(大病)이든 소병(小病)이든 모두 무도한데서 나오고 있음을 말한다. 상제께서 이룩하신 천지공사가 주안점은 바로 이러한 병을 치유하기 위한 데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펴고 있다. 즉 천지공사로 인해 이룩되는 새로운 세계는 음양합덕의 조판으로 이루어지는 후천의 신천지이다. 이러한 세계를 맞이하고 현재의 큰 무도병(無道病)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곧 안심안신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의 자세라고도 하겠는데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윗 글에서 하나의 기도문으로 요약되고 있다. 즉 구천상제의 공사가 틀림없음을 확신하고 이것이 유일한 도(道)이며, 따라서 오로지 상제를 따르는 마음으로 어떠한 유혹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일심으로 그 지조를 지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안심안신이 되면 도(道)가 서게 되고 대병이든 소병이든 곧 낫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순진리는 해원상생의 대도(大道)로서 모든 사람이 화합하고 덕을 베풀어 서로를 잘되게 해주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천에서 발생한 대병으로 인해 진멸지경에 처하게 된 인류가 새로운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것도 대순진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임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병(大病)의 약으로 제시된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은 대순진리를 실천 수행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상제를 향한 믿음에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다.

2. 안심(安心)안신(安身)을 위하여

안심안신의 신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순진리를 정각하고 필요 없는 욕심이나 번뇌를 일삼지 말아야 한다. 과연 상제께서 선포하신 진리가 옳은 것인지, 바르게 닦아나가야만 하는 것인지를 의심을 완전히 풀고서야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에도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도해 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어떠한 허물도 다 풀어야만 한다. 마음이 안신을 가져오므로 마음의 허물은 곧 몸의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상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 속으로 풀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니라. (교법 2장 16절)

라고 하여 허물이 있을 때 모두 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풀 것을 강조한다.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 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게 되니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그 마음에서부터 풀면 그로 인해 몸과 운명도 따라서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당시에 『상제께서 처음으로 자기를 따른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그동안 지내오던 허물을 낱낱이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또 반드시 그의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겁액을 풀어 주셨도다.』 (교운 1장 2절) 라고 하여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허물을 마음속으로부터 풀게 하고 그 척신과 겁액을 풀어줌으로서 안심안신이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안심안신이 되기 위하여 그 허물있는 것을 마음 속으로 먼저 풀고 또 다른 허물을 짓지 않도록 그 몸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부터 이유없는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곤욕을 겪더라도 이에 상대를 먼저 원망하기에 앞서 자신의 몸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신명이 그 마음으로부터 왕래하므로 만일 자신의 허물을 살피지 않으면 그 허물이 자신에게 없을 때는 독기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고 그것이 나오게 된 본처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교법 2장 28절 참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마다 번뇌와 고민이 생기게 되니 그러므로 어떠한 허물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따라서 몸도 안정이 되어 안심안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과거의 모든 허물을 뉘우쳐서 일시적으로 안심안신이 되었다 해도 계속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자세와 각오가 있어야만 한다. 즉 안심안신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생과 위협 그리고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도 초연하게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보다 큰 경지에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이다. 전경에는 이와 관련하여 『맹자(孟子)』에 나오는 한 구절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그 몸을 고통스럽게 하며 몹시 배고프게도 하며 다니는데 여비를 떨어트리며 그 하고자 하는 바에 분란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능하지 못한 것을 증익(增益)해주는 것이다.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勞其心志 苦其筋骨 餓其體膚 窮乏其驢行 拂亂其所爲 是故 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 ; 행록 3장 50절)

윗 글에서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리는 사람이란 곧 안심안신을 이루어 상제의 천지공사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때 안심안신을 할려고 하면 할 수록 마음으로부터 의심이 생기고 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며 배고픔과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분란스럽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 견디지 못하고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안심안신이 안되어 바라는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다는 것이다. 이로서 볼 때 상제

의 대순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고 하는 원대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만큼 수행과정에서의 시련도 크게 찾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상제의 천지공사를 받드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다 보면 본래 자신의 타고난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니, 비로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대임을 맡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 겪었을 때 진정한 안심안신이 되는 것이니, 그 사람의 마음에 신명이 드나들면서 체질과 성격을 고쳐 씬으로 인해 마음과 몸이 혼연일체가 되고 따라서 안심 안신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상제의 천지공사를 확신하고 이를 받드는 신도라면 마음 깊숙히 새겨두어야만 할 내용이라 하겠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안심안신에 대한 내용을 대략 살펴보았다. 안심(安心)안신(安身)은 대순진리의 체계 가운데 신조에 속하는 것으로 사강령(四綱領)의 하나이면서 제일 먼저 제시되는 개념이다. 종지가 하나의 사상을 대변하는 개념이라면 신조는 그 사상을 실천하고 현실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안심안신을 제일 먼저 거론하게 된 것은 모든 실천과정에 있어 근본이 되는 자세를 가리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안심과 안신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이것을 단순히 생활 속의 안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천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수행해 나가는 수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있다. 즉 대순진리를 실천수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자세가 확고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안심안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 구천상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야 할 것이며, 자신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도(道)임을 자각하고 여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시비도 자신에게 미치지 않고 나아가 어떤 유혹에도 자신을 말려들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안심안신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심이 안신보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마음이 몸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안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몸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그 마음에 안심이 안되어서이다. 마찬가지로 대순진리가 이 땅에 출현한 것은 선천의 세계가 무도(無道)라고 하는 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며 이를 치유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상제께서 강세하신 것이다. 이 때 제시된 안심안신은 이 세상의 무도(無道)로 인한 대병(大病)에 대해서도 하나의 유일한 약이 될 수 있는데 곧 대순진리에 있어서 안심안신은 그 진리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만 하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조로서 제시된 안심안신이야말로 종지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과 관련하여 표리(表裏)가 되고 종지의 현실적 구현방안으로 확립되어서 수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숙지되어야만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하나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반드시 실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대한 뚜렷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천상제께서 선포하신 대순진리를 도주께서 16자의 종지로 확립하고 이어서 신조를 정하여 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요강(要綱)을 확립하신 것으로 본다. 이는 곧 신조에 입각하여 수도해 나갈 때만이 그 바라는 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로써 진리의 대체(大體)를 실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안심안신은 이러한 신조의 첫머리로서 수도인이라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의(教義)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다.